

현재 벌어지고 있는 ‘지록위마’의 실체

-한외과대학의 기초의학 교육강화에 관하여-

이 무 열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교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자문위원
heeyun@cau.ac.kr



<편집자 주> 최근 한외과대학에서는 생리학, 병리학, 영상의학 등 의과 기초의학 교육을 강화시키고 있다. 얼마 전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도 2021년부터 한외과 대학 교육 프로그램에 의생명과학 교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한외과 대학의 움직임에 대해 일각에서는 세계의학교육협회의 세계외과대학 명부에서 한외과 대학이 삭제되면서 우수인재 유치나 한외과 대학의 미래에 닥친 난관을 파쇄하고자 하는 방안이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한다.

한외과 대학은 독특한 면허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진풍경에 대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본고를 통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들어가며

지록위마라는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다. 한자의 의미 그대로 해석하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함' 정도로 말할 수 있다. 진나라 때 시황제를 섬기던 환관 하나가 시황제 사후에 어린 황제를 농락하고 세력을 휘두르며 황제를 모시는 모든 관리들을 농락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사실 '사슴을 말이다'라고 주장하는 정도의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많지는 않지만 사회의 곳곳에서 이러한 상황이 종종 벌어지고 있는 것을 언론의 사회면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근자에 수년간에 걸쳐 한의과대학에서 의학과목, 특히 기초의학 과목의 교육을 강화하고자한다는 사실을 접하고 필자는 한의학의 발전에 이러한 시도가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의문 내지는 회의적인 생각을 가졌었다. 한의학이라는 학문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은 물론 어찌 보면 전혀 다른 학문이라 할 수 있는 의학을 전공하는 학자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한의학이라는 학문의 특성이 의학과는 현저하게 다른 것은 물론 그 이론적 배경이 되는 기초의학이라는 부분에서는 판이하게 다른 학문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은 물론 의학에 있어 기초의학에 해당하는 기초한의학이라는 학문들의 특성에 대해 2017년도 연구와 분석해본 결과에 의하면 한의학에서 말하는 기초과목들인 한방생리학, 한방병리학, 한방해부학이라는 학문들은 의학에서 말하는 생리학, 병리학, 해부학과는 상당한 학문적 차이를 둔 학문이었음을 확인하였다. 용어적인 문제를 논해보아도 우리가 기초의학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한의학 전공자들에게는 기초한의 학이라는 용어로 표기해야 더 정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의학과 한의학이 다르고 의사와 한의사가 분

명히 교육과정과 독자적인 면허시험을 통해 구별이 되는 다른 존재인데, 한의사에게 기초의학의 교육을 강화한다는 의미는 과연 의사와 한의사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자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 내지는 의혹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한의대 기초의학 교육의 문제점

필자는 2년 전 모 사건의 법정에서 진술을 마친 후 사건 담당 기자들과 의사와 한의사에 대한 원초적 질문을 받은 자리에서 「의사는 의사이고, 한의사는 한의사」라는 평소 소신을 밝힌 바 있다. 어린 시절 한의사를 직업으로 삼으신 아버님의 자녀들과 친우관계를 많이 맺었던 인연으로 인해 한의사들에 대한 존경심 내지는 존중감이 상당히 높은 편임을 개인적으로 피력하는 바이다. 하지만 근래 벌어지는 한의학계의 일부 움직임은 상당히 오해를 유발할 만한 상황이고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입장에서 보면 의사와 한의사의 구분이 모호해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수위까지 진행된 상태로 생각된다. 이에 따른 의견은 다양한 방향에서 발생되고 논의될 수 있지만 오늘은 교육 문제 특히 기초의학 교육 문제에 집중하여 몇 가지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한의학계에서 기초의학 교육에 대한 필요성 내지는 당위성이다.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전략 내지는 전술을 통해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이란 미래의 학문적 후계자 내지는 해당 학문의 책임자를 키워내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올바른 교육을 통해 해당 학문 내지는 해당 분야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기초의학 교육이 왜 한의학 분야에서 필요한가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초의학 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기초한의학 교육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실 필자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기초의학 분야는 매우 빠른 변화와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 한의학의 현대화를 부르짖는 작금의 한의학계에서 기초한의학의 발전은 과연 현대화가 되어 가고 있는지 아니면 현대화에 대한 한계에 부딪혀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의견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혹시라도 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의학 분야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관련 학문 분야에 정중한 자문 내지는 의견을 구하는 것이 학자로서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된다. 참고로 필자도 기초의학의 한 부분인 생리학의 전공자이지만 다른 전공인 생화학이나 해부학적 문제에 의문이 생기면 해당 과목의 전공자에게 의견을 구하는 편이다. 기초의학의 일부분에서도 이러한 학자적 자세가 보편적 정서인데 하물며 학문의 종합체인 한의학 분야에서 기초한학과 기초의학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전문가에 대한 존중이 없다면 그 분야 또한 다른 분야의 학자들로부터 존중받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둘째, 국내 의료 환경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문제점을 지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독특하게 의료법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세 치료인 직군이 의료인이라는 동일한 용어로 묶여있는 바에 따라 ‘의사도 의사, 치과의사도 의사, 한의사도 의사’라는 다소 그릇된 인식이 통용되는 사회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의사의 경우는 치과 의사처럼 치료를 담당하는 부위가 한정되지 않고 의사와 마찬가지로 인체 모든 부위에 대한 치료는

물론 치료를 위한 진단, 검사 또한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의사와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때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의료법상(2조 2항)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는 조항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의 조항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의사의 경우 특정한 수식어 없이 의료와 보건지도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는 조항을 따르면 법적으로는 모든 의료행위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의사의 경우에는 한방이라는 제한적 범위 안에서 의료행위 및 보건지도에 임할 수 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의사들이 한방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것을 주장하자는 의미는 아니고 이 조항에는 아마도 ‘의과’라고 의사들이 표현하는(한의사들은 ‘양방’이라는 용어를 선호함) 수식 단어가 생략되었을 거라 생각되므로 법에 의하여 의과와 한방은 구분되어 활용되어지는 것은 물론 각 분야의 종사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그 과정을 통해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의료 환경은 의사, 한의사에게 환자치료에 있어서는 동등한 권위를 부여한 반면, 각자 분야의 중복 내지는 상대 영역의 활용은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서 한의학계가 기초의학의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의학의 발전모델을 한의학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아닌 이상 당위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이다. 필자의 입장에서는 기초한학을 현대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한의학계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닐까하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피력하는 바이다.

셋째, 교육과정의 인증이다. 현재 의과대학은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인증하는 기관(평가인증기

구) 및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한의과대학은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인증하는 기관 및 프로그램을 각각 별도로 가지고 있다. 국내의 모든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은 모두 해당 기구의 인증을 받은 학교를 졸업해야만 의사 내지는 한의사의 자격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이후에 각각의 자격시험을 합격해야만 한다. 필자는 의과대학의 인증기관업무를 일부 담당한 경험이 있어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은 철저하게 의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일부 의사들의 인성 내지는 사회성을 키워주기 위한 과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의과대학의 인증 또한 철저하게 한의학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한의학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교육자로서 지니고 있는 필자의 소신이다. 한의학 분야가 교육과정에 흑여 여유가 있어 다른 학문분야는 이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한의학 전공의 학생들에게 알리고 싶어 한다는 당위성이 있다면 모를까 한의학처럼 광범위하고 역사가 오래된 학문을 교육하기에 재학기간만 가지고도 충분한 학업기간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타 분야까지 교육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것은 그 의도를 순수하게 해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뭔가 다른 목적이 있지 않을까하는 합리적인 의심은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과거 일부 의과대학에서 한의학에 대한 내용(한의학 개론 등)을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포함시켰다가 현재는 대부분의 의과대학에서 의과부분의 학습량 및 실습교육량의 증가로 인한 전반적 강의/실습 시간의 부족현상으로 인해 해당 강의를 폐지시킨 것은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치며

이상의 의견을 모아 정리해보는다면 기초의학 분야에 대하여 한의학계에서 관심을 보인다는 점에서 기초의학 전공자로서는 고마운 일이지만 기초의학 보다는 본연의 학문인 기초한의학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한의학계 발전에 더욱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혹여 이런 시도가 최근 국내의 한의과대학을 세계 의학교육 연합회(WFME)에 가입시키려는 시도와 관련이 있다면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걱정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 바이다. 필자가 꾸준히 주장해온 바와 같이 의사는 의사이고 한의사는 한의사인 것처럼 의과대학은 의과대학으로서 발전을 이루어가고 한의과대학은 한의과대학으로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서로 간에 전문가 집단으로서 존중하고 상호 협력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지만, '한의사도 의사다, 한의학도 의학의 한 분야다'라는 주장을 펼친다면 앞으로 한의과대학은 그 특성과 정체성을 잃어버린 의과대학도 아닌 한의과대학도 아닌 마치 사슴도 말도 아닌 이상한 가상의 동물로 변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바이다. 필자의 일관된 주장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시험을 합격하여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저는 의사이지만 한의사는 아닙니다'와 동일한 원리로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의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 또한 '한의사이지 의사가 아니다'라는 평범한 명제를 바탕으로 각각의 분야에서 교육, 연구, 진료에 있어 각각 최선의 활동을 견지하는 것이 바른 태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런 사고를 바탕으로 양 집단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의료인의 모습으로 의료분야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이 땅의 의료인으로서 올바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는 바이다.